

제1과 번제단과 성막 뜰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27장 1-21절

찬송: 338장(통364장), 327장(통361장)

간직할 말씀 :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 27:21)

주제 :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 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들 규정은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신 양식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에 관한 출애굽기의 핵심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신 양식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그대로 했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것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에 부속된 기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성막과 그것에 부속된 기구들은 그 하늘 예루살렘 성전과 그것에 부속된 기구들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전은 우주의 중심(옴팔로스)이고, 성막은 그것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광야시대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자, 축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 4-5장에 기술된 예배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요, 그리스도교 예배의 실체와 원형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1-8절).

출애굽기 27장 1-8절은 번제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25-26장은 성막과 그 내부에 관한 것이었지만, 27장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그에 따른 제사도구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단이기 때문에 ‘번제단,’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뚫단’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전체를 뚫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조각목으로 사방 5규빗(2.25m), 높이가 3규빗(1.35m) 크기로 제작한 다음 뚫으로 짠 것입니다. 넓이는 1.5~1.6평 정도입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들, 곧 재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물, 고리, 등은 모두 뚫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뚫은 십자가를,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예물과 감사예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질 때 비로소 속죄함을 받고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뚫뿌을 만들어 세웠고, 또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죽다가 살아났듯이(민 21:5-9), 번제단과 그것의 부속기구들을 모두 뚫으로 만든 것

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뱀뱀을 만들어 세운 것은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세계에서 뱀이 병도 주지만 약도 주는 치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세운 뱀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이는 뿔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 합니다.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세계에서는 뿔을 신성과 힘과 권세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희생제사 때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발랐던 것은(레 4:18, 25, 8:15)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속죄능력을 미리 보여준 표시였습니다. 또 제단 뿔을 붙잡고 탄원을 하면 억울한 누명이나 실수로 범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면 받을 수 있었던 것도(왕상 1:51)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2. “다 뿔으로 할지니라”(9-19절).

27장 9-19절은 성막 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막 뜰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이 각각 100규빗 곧 45미터, 동쪽과 서쪽이 각각 50규빗 곧 22.5미터로써 306평 정도입니다. 울타리는 5규빗 곧 2.25미터 높이로 세마포로 쳤습니다. 기둥은 5규빗 곧 2.25미터마다 하나씩 세웠고, 각 기둥은 뿔받침을 만들어 받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의 경계를 표시할 울타리를 치는데 2.25미터 기둥 60개, 뿔받침 60개, 2.25미터 폭 세마포가 126미터 필요했습니다. 또 각각의 기둥에는 은갈고리와 은고리와 뿔말뚝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회개와 씻음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하나뿐이었습니다. 크기는 20규빗 곧 9미터이었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휘장을 쳤습니다.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의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동쪽문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문’이신 예수님뿐임을 강조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단과 그것의 부속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뿔으로”(19절)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상징한 것입니다.

3.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20-21절).

마지막으로 27장 20-21절은 등잔대의 연료 및 그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등잔대의 제작 규례와 사용 명령을 따로 구분하여 지시할 만큼 등잔대와 그것의 연료가

되는 기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겹의 양장으로 씌워진 성막 안은 밤이면 바깥으로부터 자연광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칠흙 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로 이곳 성소에 놓인 황금등잔대 위의 일곱 개 등잔에 불을 밝힘으로써 그 내부를 밝게 하며 제사장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등댓불은 죽은 것 같은 실재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듭니다. 결국 이 등잔대는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과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기름의 재료는 올리브유였습니다. 지방 함유량이 60퍼센트 이상으로 많은 양의 기름이 추출됩니다. 올리브유는 질이 좋고 향기가 좋아 고대로부터 향유와 식용유로도 사용되어져왔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유는 성도의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성소를 밝힐 유일한 기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올리브유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침’의 표시로 사용되었고, 치유를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는 성령님의 특성을 상징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충분할 때 어둠을 오랫동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때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어둠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 순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3세기에 걸쳐 펼쳐온 교회들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제작에 관한 출애굽기의 핵심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신 양식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인들이 그대로 했다는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바로서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195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는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과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 곧 기도와 성경읽기를 한시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전설적인 영웅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성경말씀대로 살았을 때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체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2. 조각목이 낫으로 감싸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싸질 때 체험한 은혜들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3. 기도와 성경읽기를 통해 체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제2과 대제사장의 예복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28장 1-43절

찬송: 87장(통87장), 85장(통85장)

간직할 말씀 :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니라”(출 28:5)

주제 : 그리스도인이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엮어주는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장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4절) 나뉩니다. 그 하나 하나에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듯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모형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인격과 성품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1.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1-14절).

먼저 ‘반포 속옷’은 가늘고 하얀 베 실로 짠 흰옷입니다. 속옷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속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평상시 입는 통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가늘고 하얀 베 실로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성도들의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옷은 ‘에봇 받침 겹옷’입니다. 이 옷은 에봇 안쪽에 입어서 에봇을 받쳐 주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겹옷’이라 불렸습니다.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옷은 ‘에봇’입니다.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베 실로 만들어졌으며, 대제사장이 제일 곁에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금실은 믿음, 청색은 생명, 자색은 왕권, 홍색은 십자가의 보혈, 가늘게 꼰 베 실은 성결을 각각 상징합니다.

네 번째, 에봇의 두 어깨띠에 호마노를 각각 매달입니다. 우편 어깨띠에 매달 호마노에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나이 순서로 여섯 명의 이름이 새겨졌고, 좌편 어깨띠에는 나머지 여섯 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또 각각의 호마노에는 금테를 입혔고, 금테에 금사슬을 달았으며, 금띠로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의 생사가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두 어깨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상징합니다.

2.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15-30절). 다섯 번째, 가슴에 ‘판결 흉패’를 매답니다. 네모반듯하며 대제사장의 예봇 앞가슴에 매답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세 개씩 네 줄로 이름이 새겨져 매달려 있었으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뭉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며, 둠뭉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뭉이 들어 있는 예봇을 입은 대제사장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불렀습니다.

이 흉패는 택한 자기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이고, 마음의 중심이자, 사랑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석처럼 귀하게 보살핌을 받아 구원과 참 안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일 없고, 천한 존재일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각종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다 다른 것은 사람마다 다 성격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각각의 보석이 다 가치가 다르고 쓰이는 곳이 다르지만 다 귀하고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31-43절).

여섯 번째, ‘허리띠’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끈입니다. 성결의 상징인 가는 베 실로 만듭니다. 따라서 이 띠는 성결의 띠라 할 수 있고, 겸손과 사랑의 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관에 매다는 ‘성패’가 있습니다. 관은 성결을 상징하는 가는 베 실로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성패를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끈으로 매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성결을 주신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예복이 상징하는바 대제사장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성결케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성패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성결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성결까지 두 어깨에 짊어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

스도는 자기 백성의 성결을 위해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붉은 피가 죄를 희게 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피가 천에 떨어지면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붉어져 더러움을 남기지만, 남을 위한 희생은 오히려 씻음을 줍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예복이 그러하듯이,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입니다. 2절에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했고, 5절에서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다”고 하였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금실은 믿음, 청색은 생명, 자색은 왕권, 홍색은 십자가의 보혈, 가늘게 꼰 베 실은 성결을 각각 상징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함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상징인 왕권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과 성결로 얻는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새기며

1.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였는데,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성품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무엇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짤 수 있을까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베 실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봅시다.
2. 대제사장이 두 어깨띠에 매단 호마노와 관 앞면에 매단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성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상징)한 것인지를 말해봅시다.

제3과 제사장의 위임규례와 상번제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29장 1-46절

찬송: 14장(통30장), 17장

간직할 말씀 :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9:45-46).

주제 : 그리스도인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와 상번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 제사와 네 가지 제사 방법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42-46절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들이 드러지는 회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 중에 거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의 예표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제사의 종류(1-28절)

제사의 종류에는 첫째, 번제(燔祭)가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희생 제사로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제단위에 올려놓고 거룩한 불로 모두 태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자의 심혼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방법입니다. 제물은 형편에 따라 바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써 예배자가 희생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 후 가죽을 벗기고(진실하지 못한 것을 버린다는 뜻), 각을 뜨고(구별된 삶을 의미), 피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몸체는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번제는 보통 다른 제사와 함께 세트(Set)로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면, 그 속죄제가 하나님께 열납된 것을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번 동물로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원해 드리는 소제(素祭)가 있습니다.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로서 곡물의 가루가 희고 곱다는 뜻에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극빈자는 고운가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징은 유일하게 피없는 제사란 점입니다. 여기서 고운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몸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넣어, 기도의 상징인 유향과 함

게 굽거나 볶았습니다. 여기에는 부패와 외식을 상징하는 누룩과 향락을 상징하는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허용되었습니다. 이 소제(素祭)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자원해 드리는 화목제(和睦祭)가 있습니다. 예배자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장, 이웃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경축일이나 제사장의 성별식, 나실인의 구별의식 때 드려졌고, 개인적으로는 서원이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드려졌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넷째,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죄제(贖罪祭)가 있습니다. 속죄제란 범법행위나 죄악을 속(贖)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 족장을 위해서는 숫염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와 어린양,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 마리, 극빈자를 위해서는 고운가루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다섯째, 의무적으로 드리는 속건제(贖愆祭/愆:허물 건)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성물에 대한 범죄,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죄를 지었을 경우, 나병환자가 치료되었을 경우, 부지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드린다. 배상은 5분의 1을 더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죄는 크게 죄와 허물로 구분됩니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십계명 중 제1-4계명을 범한 것을 말하고, 허물(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말하며, 주로 제5-10계명을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1-4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5-10계명에 해당되는 허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총 613개이고, 그 가운데 248개가 “~하라”는 계명이며, 365개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 제사의 방법(29-37절)

제사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화제, 요제, 거제와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火祭)는 짐승이나 곡식을 불에 태우거나 구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요제(搖祭)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봉헌하는 제사입니다. 거제(擧祭)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방법을 말합니다. 전제(奠祭)는 포도주나 술 또는 기름과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신을 관제(灌祭)로 드린다는 표현을 씀으

로써 전제의 영적 의미가 헌신과 순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조차 이들 제사예배는 더 이상 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제국에 의해서 파괴되고, 바벨론에 유배되어 갔을 때부터 이미 제사예배대신에 기도문을 암송하는 관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졌던 제사 횃수만큼 매일 세 번씩 기도문(쉐모네 에스레이)을 암송함으로써 제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곧 설날로부터 열흘째날인 ‘욘 키푸르’ 때 집례 하는 제사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정해진 복식(服飾)에 따라 세마포 고의(속바지)를 입고, 반포 속옷(가는 베실로 짠 통옷)을 입으며, 또한 아랫단에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교대로 달린 청색 길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 위에 다시 열두 보석을 수놓은 흉패를 덧대었습니다. 완전한 복장을 갖춘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인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정하고 다른 한 마리는 떠나보내기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정합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부터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단 앞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6평정도 크기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는데, 지성소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금향로에 향을 태워 연기를 피운 다음, 그것을 짐승의 피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향을 태운 연기를 가득하게 한 후에 서편에 놓인 법궤 위에 놓인 속죄소 위와 동편(출입구 쪽)에 짐승의 피를 일곱 번 뿌렸습니다.

그 다음 지성소를 나온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금향로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그 앞에 뿌렸고, 다시 나와서 번제단 앞으로 간 다음 먼저 잡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의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피를 일곱 번 뿌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행한 대제사장은 이제 한 마리 남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아사셀(**אֲזָזֵל**, Azazel, scapegoat)을 위하여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사셀은 ‘떠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단어이며, ‘(죄의 짐을 지고) 떠나보냄을 받은(떠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실체였음을 밝힌 반면, 공관복음서들은 ‘백성을 위한 속죄양’의 실체로 소개하였습니다.

속죄 제사를 끝낸 대제사장은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번제로서 숫양 한 마리를 잡아 불에 태워 바쳤으며, 또 백성들을 위한 번제로써 또 한 마리의 숫양을 잡아 불에 태워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마쳤습니다.

3. 하나님 임재의 상징 회막(38-46절)

구약의 제사는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이뤄졌지만,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더욱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근본이 동물희생 제사였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상징적으로 전가시킨 후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죽임으로써,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동물이 대신 치르게 하여 죄를 용서받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제사에 대한 그림자였으며, 그리스도교 예배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이 신약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써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의 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공동체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진정하고 영원한 언약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뚜껑 시은소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위로 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성막에서 말하는 임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곧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집중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지시와 양식에 따라 세운 성막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임재의 사인(sign)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동을 충실하게 뒤따랐을 때,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분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습니다(요 2:19).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깨뜨려지신 육체는 옛 언약에 기초한 지상 성막과 성전을, 영광을 받으신 부활의 육체는 새 언약에 기초한 하늘 성막과 성전을 상징합니다. 옛것이 폐지되고 새것으로 대체된 이유,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되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대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성막은 천국성전의 그림자였으며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세운 교회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성전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지상성막이든, 교회이든, 천국성전이든, 성막과 성전이 갖는 중요한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9장 42-46절을 보면, 성막에서 드린 제사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막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신성한 장소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막에는 하나님과 언약백성을 섬길 일꾼들, 곧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고, 권위를 인정하시고, 뽑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바로 이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울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일꾼들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들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100퍼센트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같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큰 특징은 ‘기름부음’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뽑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계열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사사로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작용을 막을 뿐 아니라, 제사장의 고유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거룩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여 원한다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강렬한 소명의식과 받은 사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은 희생제물이 될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를 대속키 위한 예비절차였습니다. 이 의식은 성막 문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자들은 성막 문에서 예복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고, 제물을 온전하게 태우고 그 피를 아론과 예복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위임식 절차를 철저히 행하였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절차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제물은 저녁과 오전과 오후에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제사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 저녁과 오전과 오후에 19개의 기도문을 바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2. 히브리인들은 토라(율법)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제4과 분향단, 물두멍, 관유와 향 제작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0장 1-38절

찬송: 361장(통480장), 364장(통482장)

간직할 말씀 :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출 30:29).

주제 : 그리스도인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30장은 성소의 분향단과 이 분향단에서 태울 향과 금 등대에 놓인 일곱 개의 등잔을 밝힐 거룩한 기름인 관유와 성막 뜰의 물두멍 제작 및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는 기도로써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분향단과 기도(1-10절)

성막의 분향단은 조각목 상자에다 펼친 금을 입혀 만들었으며, 가로와 세로가 각각 45센티미터, 높이가 90센티미터였습니다. 운반이 용이하도록 고리와 운반채가 있었고, 운반채를 고리에 끼어놓은 채 성소휘장 앞 중앙에 놓았습니다(1-6절).

조각목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금과 은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쓸모없던 자들이었지만, 정금 같은 믿음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막 곧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된 자들입니다.

분향단에는, 첫째, 상단사면 귀퉁이에 뿔(2절)이 있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신 33:17; 삼상 2:10; 시 18:2). 둘째, 바닥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금으로 싹 것(3절)은 성도의 믿음을 나타내고, 셋째, 성소 휘장 바로 앞 또는 지성소 휘장 뒤편에 놓인 향단(6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향을 피운 것(8절)은 중단 없는 기도를 말하며(시 141:2), 다섯째, 1년에 한 차례씩 향단 뿔을 위해서 속죄제의 피를 발랐던 것(10절)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속죄피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분향단을 만드는 재료와 사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시 141:2, 계 8:3,4). 본문 7-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

저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살전 5:17),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분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휘장 앞에서 드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재의식’ 속에서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34-38절에서 지정하신 향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며, 분향의식을 다른 목적으로 행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순종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약 4:3).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십니다(마 6:33).

본문 10절, “아론이 일 년 일차씩 이 향단 뿌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 일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씀은 향단 뿌이 죄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과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물두명의 물로 수족을 씻도록 한 정결법(17-21절)을 잘 지키지 못한 채 성막에 배치된 성구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 성구들은 부정하게 되고, 쓰기에 부적당한 ‘트레이프’(treyf)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구로 쓰이기 위해서는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의식용에 합당한 ‘코쉬’(kosher)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향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는 기도의 효력이 인간이 가진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죄은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은총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엡 6:18).

2. 속전과 물두명(11-21절)

본문에서 생명의 속전은 온역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역이 돌면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역을 면한다는 의미는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출애굽기 13장 13-15절에 나타난 대속의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계수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령한 특권은 그러나 먼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고전 11:27-29).

생명의 속전은 누구나 막론하고 반 세겔이었습니다. 부자도 반 세겔, 가난한 자도 반 세겔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값의 속전을 치른다는 것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

는데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쳐진 반 세겔 은은 성막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것은 매년 바치는 성전세로 발전되었습니다(마 17:24-27). 예수님 당시 반 세겔은 노동자 이틀 치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구조사에서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뺀 나머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었으나 본문에서는 성막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16절, 민 1:2).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신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 자신들이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영생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영원한 속전의 예표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눗으로 만든 물두명은 성소의 뜰, 곧 성소 바깥마당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과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하나님 앞에 사를 때에 이곳에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20절). 이 명령은 성막 내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씻음은 단지 의식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막에 쓰인 눗은 그것이 기둥을 받치는데 쓰인 눗이든, 눗그릇이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침례나 세례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눗으로 만든 물두명의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고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두명의 물로 씻어 죽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 관유와 향 제작에 관한 규례(22-38절)

본문 22-33절은 거룩한 기름인 관유의 제작과 사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유는 성막과 기물들과 제사장을 성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관유는 자연에서 채취된 기름이 아니라 조제된 기름이었습니다(23-25절). 올리브유에 향을 적절히 배합하여 정성껏 만든 고가의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이 기름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그 기름을 성막 기구들에 발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26-29절).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 거룩히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30절). 이 기름을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은 향기롭고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관유는, 첫째,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임마누엘)이 친히 함께하십니다.

둘째, 관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셨음을 상징합니다. 관유는 성막과 기물들과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유를 부어 임직했습니다(삼상 10:1; 16:12; 왕상 1:45, 대상 29:22).

셋째, 관유는 하나님이 뽑으신 자들을 성령님으로 도장 찍으셨음을 상징합니다. 또 관유는 하나님이 구원(하늘 가나안땅)을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님으로 보증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관유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와 제사를 바칠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유를 만들 때 섞는 향료를 최상품으로 쓰도록 명령하셨습니다(23-24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조된 관유는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과 그것들을 사용할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거룩해야 함으로 제사에 쓰이는 각종 제기들은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어야 했습니다.

또 본문 34-38절은 향 제작에 관한 규례입니다. 향 제작방법과 금지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은 관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분향단에서 살라져 하나님께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 외에는 달리 사용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향은 절대 거룩한 분향단에서 살라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거룩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 없는 기도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1.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를 복습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토의해 봅시다.
2. 침례를 행위로 간주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을 말씀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보혈로 씻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취 봐야 한다는 식입니다. 침례를 행위로 봐야 하는 것인지, 물을 말씀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토의해봅시다.
3. 관유와 향이 상징하는 바를 복습하고 구별됨의 중요성을 토의해봅시다.

제5과 성막건축자와 안식일 규례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1장 1-18절

찬송: 43장(통57장), 44장(통56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출 31:12-13).

주제 : 그리스도인이 주일성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3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성막 건축을 주도할 지도자들과 그들을 도울 지혜로운 자들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1-11절). 두 번째 부분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것이며(12-17절),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필로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신 내용입니다(18절). 본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일꾼들을 특별히 선택하신다는 점,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성막 건축의 주역(1-11절).

본장에서 성막건축과 관련해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언급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장 1-11절은 성막 건축의 주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이자 당신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건축과 기물제작을 맡아 책임질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도울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셨습니다(1,2,6절).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3-11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덧입히시기 전에도 그들에게는 성막을 지을만한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속적인 기술과 재능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은 성령님에 감동감화를 받은 사람들

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능일지라도, 성령님의 감동감화가 없는 세속적인 기술과 재능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겸손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를 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12-17절).

유대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출 20:8)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기억하기’(Zakhor) 위함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신 5:12)는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키기’(Shamor) 위함인데,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여 창조의 일(Melachot)을 중단하고 노예와 유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제2, 제3으로 이어지는 해방, 곧 이스라엘의 희망(Ha-Tikvah)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적어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 12-17절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 명시하시고(20:8-11), 언약 법전에서 신신 당부하신(16:21-30) 안식일 준수를 여기서 다시 강한 어조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12-13절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14-15절은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7절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밝힌 부분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성막 건축을 앞두고 내려진 것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동안일지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중단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확신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좋은 동기와 바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과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행동의 잣대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거나 결과가 행동의 잣대가 되거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양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주장하는 진화론에 바탕을 둔 세속인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결과가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주체적인 의식과 능동적인 참여 없이 허례의식에 치우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날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3. 두 개의 돌비(18절).

본장 18절은 두 개의 돌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시내 산 등반을 명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24:12)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친필로 쓴 돌비 두 개를 모세에게 건네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돌비를 언약궤에 넣어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법궤를 만들어 성경두루마리를 보관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비에 쓰인 십계명이외에도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미즈보트)을 613개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 248개를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365개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랍비들이 수없이 많은 율타리 법(Gezairoth)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척도요, 잣대요, 저울이며, 신앙과 윤리와 도덕과 생활의 규정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바이블입니다. 그들은 이들 계명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몸에 붙이고(트필린) 문설주에 매달아(메주자) 입을 맞추며 꿀송이처럼 사모하여 읽고, 매년 한 차례씩 완독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본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일군을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2,6절).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일군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신다는 것입니다(3,6절).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일을 맡은 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셨습니다(3-11절).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12-17절).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을 잘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토의해봅시다.
2. 그리스도들에게 주일성수가 왜 중요한지를 토의해봅시다.
3. 유대교인들에게는 율법(토라)이 신앙과 윤리와 도덕의 척도요, 잣대요, 저울이며, 규범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제6과 보이는 신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2장 1-35절

찬송: 258장(통190장), 259장(통193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출 32:14).

주제 :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기고 가장 크게 분노케 하는 행위는 불륜과 배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은 민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서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신 곧 이집트의 아피스(Apis) 신을 본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광란의 축제를 여는 매우 불행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모세와 하나님은 그 분노를 가누기 힘들어 했고,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비를 그들을 향해서 던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1-6절)

본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범할 당시부터 멸망당한 때까지 200년 넘게 나라 북쪽 단과 남쪽 벧엘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한 일입니까? 신앙인들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어쩌면 큰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점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우상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현대인들도 늘 눈에 보이는 우상들 곧 재물의 신, 명예의 신, 권세의 신, 불륜의 신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듣는 하나님입니다. 타 문화권의 종교들에는 신화도 있고, 여신도 있고, 우상이나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엮드려 절하고, 제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이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유대교는 율법(토라)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리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타 종교들과 달리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마음의 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하였고,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말씀의 기초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2.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7-24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금과 은을 입힌 송아지와 같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도하고 빌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훨씬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화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 또 평소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던 사람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어둡고 암담한 현실만이 산더미처럼 부각되어서 해결의 의지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의혹과 회의에 빠진 자들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았고,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물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한 순간의 불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큼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렵고 암담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려드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3.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25-35절)

둘째,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향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1절)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여태껏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우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인정치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참 신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우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손으로 만

든 금송아지를 향해서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외친 것은 우매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고 듣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아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셋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투자합니다. 보이는 신, 보이는 세계, 보이는 육체에 투자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차고 있던 “금 고리를 빼어”(3절)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는 신, 우상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투자합니까? 그러나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 4:18)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약 4:14)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6절)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동과 그리스 로마지방의 여신을 모신 신전에서 성행했던 광란의 예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예배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음란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경건한 예배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행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각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웃기고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보여주는 영상예배에 주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며 뛰고 노는 놀이예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것에 마음을 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다음은 시인 구상의 <기도>란 시입니다. 읽고 느낀 점을 서로 말해봅시다.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사قم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허깨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스러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울 풀잎 하나 주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혀를 닳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불 장마 속에서 '노아'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기 꽃잎 모양 스러져 가는 어린 양들과 한 가지로 있게 하옵소서.

제7과 하나님의 동행거부와 모세의 간구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3장 1-23절

찬송: 399장, 401장(통457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 33:14).

주제 :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와의 은총을 입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대가는 동족이 동족을 쳐서 죽이는 비극(32:25-35)이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줄곧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별거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을 뺏뺏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한 고집과 꾀역한 거만을 지칭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경우 필경은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실, 곧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행하지 않으심’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과 ‘은총을 입지 못함’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과 ‘마음을 얻지 못함’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모른 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바로 이 무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의 뜻 속에는 이런 무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동행하심을 의심했고, 감사할 줄 몰랐고, 섬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모른 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이

집트를 탈출한 줄로 착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친 줄로 오해하고,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을 몰아낼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했으며, 감사치도 않았고, 오만했으며, 우상, 곧 죽은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무지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섬깁니다. 그 신들은 그들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부메랑들입니다.

2.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7-11절).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심각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 곧 성막건축이 이뤄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치한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 모세는 간곡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보시옵소서.”(12절)로 시작된 모세의 기도는 앞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1,2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15-16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뼈 속 깊이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주심을 받고서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감각이 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머리가 둔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일상에서 밥 먹듯이 합니다. 한 가지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에 하는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 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누가 무능해서,’ ‘누가 무식해서,’ ‘누구 때문에’라고 모든 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면 아무 데도 가지 않겠노라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끌어내고 도우미로 아론을 붙이시도록 끈질기게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거부선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동행을 간구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3.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12-23절).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고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셨으며, 여호수아도 장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겸손함과 불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마음까지 바꾸게 하였고, 분노를 삭이게까지 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만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17절에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의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무슨 얼굴이 있거나 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일할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시의 형태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행하지 않으심’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과 ‘은총을 입지 못함’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과 ‘마음을 얻지 못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동행을 간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동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할 때, 주의 길을 간절히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께서 동행거부를 선언하셨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봅시다.
2.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이유를 말해봅시다.
3.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이나 은총의 필요성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봅시다.

제8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4장 1-35절

찬송: 278장(통336장), 279장(통337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출 34:6).

주제 :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의 성품에 의존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춘분이 지난 직후 찾아온 음력 보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 보름에 시나이 기슭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머물면서 탈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비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두 돌비는 백성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금송아지 사건에 분노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십계명 돌비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1-9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회복의 증거로 새로운 돌비 두 개를 모세에게 깎아 만들게 하셨습니다(1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시나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2-4절).

첫 번째 언약체결과 두 번째 언약갱신에서 다른 점은 두개의 돌비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시고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인데, 두 번째 것은 모세가 깎아 만든 두 개의 돌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약을 새겨 둘 마음의 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새 언약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돌비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신적 권위와 위엄이 감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두고 두고 기억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5-9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소개하고 계십니다(5-7절). 모세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8-9절).

여기서 반포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원래 4개의 히브리어 자음(YHWH)으로 ‘야훼’라고 읽혔다고 합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난 뒤, 특히 주전 3세기부터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째, 유대교는 그리스 로마세계에서 개종자들을 얻어 보편종교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이란 뜻을 가진 일반명사 ‘엘로힘’을 ‘야훼’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하여 발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당 예배에서는 ‘야훼’를 ‘나의 주’란 뜻의 ‘아도나이’로 발음했는데,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은 이 단어를 ‘주’란 뜻의 ‘키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또 주후 6-10세기경에 히브리어성서 본문의 간행작업을 벌인 마소라 학자들은 ‘야훼’를 뜻하는 히브리어 자음 4개(YHWH)에 히브리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의 모음부호들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Jehovah, YeHoWaH)라는 인위적인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마소라 학파의 전통을 따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19-20세기 성서학자들은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10-28절).

이 ‘야훼’ 하나님의 성품이 6-7절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렘 31:29-30, 겔 18장과 비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결단코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10-28절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갱신언약의 내용은 이미 주어진 것과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10절). 둘째, 가나안 정착 후에 우상문화에 젖은 원주민들과는 그 어떤 통혼이나 통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11-17절). 셋째, 23장에 언급된 3대 절기에 관한 언급으로써 이방의 타락한 제사법을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18-26절). 넷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두 돌비에 기록하시는 장면(27-28절)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언약은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둔 것들입니다. 우상숭배

와 관련된 계명들이 다시 언급된 이유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3.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29-35절).

금송아지 사건은 유다왕국의 멸망과 회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상숭배는 광야에서 출생한 히브리인 2세들이 광야유랑을 끝내고 가나안땅에 들어가 살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배지에서 출생한 유대인 후손들이 유배생활을 끝내고 고토인 가나안땅에 돌아와 살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언약갱신이 바로 그 같은 교훈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에 따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모세는 하산합니다. 그 내용이 29-35절입니다. 여기서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고(29-30절), 그것을 알아챈 모세는 그 두려움을 누그러뜨린 후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차 선포합니다(31-32절). 그리고 그 후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를 빼고는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항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후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33-35절).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언제쯤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가 결코 모세의 인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단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었다는 점에서 나타난 혹은 나타나는 광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본문 34장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간구할 수 있으며,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언약을 어기고 죄짓고 벌 받지만 회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2.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

에 담대히 나아갈 수”(히 4:16)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3.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의 성품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제9과 성막건축을 위한 백성의 헌물

오늘의 말씀 : 출애굽기 35장 1-35절

찬송: 214장(통349장), 216장(통356장)

간직할 말씀 :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출 35:29).

주제 :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에 자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1,4절). 모세가 첫 번째 전달한 내용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이 서두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성막건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암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1-3절).

2-3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칠 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엄격하고 준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총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 뿐 아니라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들 계명들을 범할 수 없도록 하려고, 수많은 율타리(Gezairoth) 법들을 만들어 겹겹이 둘러쳐놓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 계명을 둘러칠 율타리 법들을 39가지 성막건축공정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이 안식일 준수와 성막건축에 어떤 뻔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a)로 보고 있고, 출애굽기에 언급된 성막(Mishkan)건축공정에서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성막건축에 필요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합니다. 이들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꽃꺾기, 과일따기, 나물채취, 잔디깎기, 화초에 물주기, 밭갈기, 씨뿌리기, 과일, 꽃, 나뭇

가지 등을 모우기, 타작하기, 알곡고르기, 과일주스내기, 골라내기, 빵기, 찜기, 체질, 까 불리기, 반죽, 불켜기, 끄기, 손발톱깎기, 털자르기, 털뽑기, 빗질, 빨래, 샤워, 화장, 선텐, 립스틱바르기, 바느질, 접착제나 압침사용, 종이우유팩열기, 절이기, 소금뿌리기, 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선긋기, 절취선이 있는 티슈박스개봉과 두루마리휴지떼어쓰기, 쇼핑,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땅에다 짓거나 수리 및 부수기, 불피우기, 불끄기, 자동차의 시동걸기,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기, 악기연주,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입니다.

성서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위급상황에서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법보다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안식일일지라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밖에 행동들도 필요에 따라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을 윤리학에서는 차등적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차등적 절대주의란 생명을 구하는 자비로운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기 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더라도 그 죄가 면제된다는 주장입니다.

2.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4-19절).

모세가 두 번째로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한 내용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수집에 관한 것입니다(4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의 기증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된다는 점입니다(5절).

둘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의 기증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바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5절).

셋째,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에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베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입니다(5-9절).

넷째, 성막건축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일이라는 점입니다(10절).

다섯째,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야 할 물품에는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 그 갈고리, 그 널판,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증거궤와 그 채,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 상과 그 채, 그 모든 기구, 진설병,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 그 등잔, 등유, 분향단과 그 채, 관유, 분향할 향품, 성막문의 장, 번제단과 그 놋 그물, 그 채,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포장과 그 기둥, 그 받침, 뜰문의 장, 장막 말뚝, 뜰의 포장 말뚝, 그 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들입니다(11-19절).

3.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20-35절).

여섯째, 모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각자의 천막으로 흩어졌다가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의 남녀들이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들, 곧 가슴 편,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등의 여러 가지 금품,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베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 놋, 조각목 등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20-24절). 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 뽑아서 가져왔고(25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가져왔으며(26절), 족장들은 호마노와 보석과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고 했다(27-28절).

일곱째,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성막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29절).

모세가 세 번째로 언약백성에게 야훼의 계명을 전달한 내용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책임자들에게 관한 것입니다(30-35절).

하나님은 성막건축을 위해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덧입혀 각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30-31절). 그가 해야 할 일들은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를 다루는 장인의 일이었습니다(32-33절). 또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고 가르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시고 조각과 디자인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놓는 일과 베 짜는 일들을 다루는 장인의 일이었습니다(34-35절).

말씀을 마치며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흠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헌물이든 현금이든 봉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본문은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자는 것입니다. 무능과 우둔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만 하신다면, 혼돈이 질서가 될 수 있고, 공허가 채움이 될 수 있고, 흑암이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하나님의 은총을 입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거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같은 체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3.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이유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 봅시다.